

# 2021/22년 몽골Ⅲ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결과보고서

2022. 8. 8. ~ 8. 12.

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I 출장 배경 및 목적

- **(KSP 배경)** 기획재정부와 KDI는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87개국 대상의 1,30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
- **(몽골III KSP 추진 현황)** 몽골과의 KSP 사업은 2010년 개시 이래 거시·금융, 국토개발, 재정 및 산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 48개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을 실시
- **(2021/22년 몽골III KSP)** 기획재정부는 2021/22 몽골 KSP 주제를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선정, 아래와 같이 연구진을 구성하여 정책자문을 수행함.

< 2021/22 몽골III KSP 정책자문 주제 및 연구진 >

| #                                 | 주제                 | 연구진               |
|-----------------------------------|--------------------|-------------------|
| <b>몽골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b> |                    |                   |
| 1                                 | 국채 발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 손욱(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 2                                 | 국채 유통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 백상태(한국예탁결제원 부장)   |
| 3                                 | 국채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 마련  | 이진일(한국예탁결제원 부장)   |

수석고문: 박범국(現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

KDI 사업책임자: 이태희(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KDI 사업관리자(정): 이세훈(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KDI 사업관리자(부): 이미연(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목적)** 몽골 협력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언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자문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후속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출장을 추진

## II 행사 개요

- ☐ 단 계 명: 2021/22년 몽골Ⅲ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 ☐ 기 간: 2022년 8월 8일(월) ~ 12일(금), 한국 출·입국일 기준
- ☐ 출 장 지: 몽골, 울란바토르
- ☐ 주요 활동
  - **(최종보고회)** 자문주제 관련 협력국 정부부처 및 유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부주제별 최종 정책제언 내용을 발표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협력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고위정책대화)** 협력부처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정책자문 결과를 공유하고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요청
  - **(22/23 사전협의)** 22/23 KSP 협력부처인 몽골 광업, 중공업부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수요 변화 파악 및 사업 추진 계획 협의
    - \* 22/23 몽골 KSP 사업명: 몽골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기술단지 개발 방안
  - **(후속사업 수요 파악)** 사업주제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21/22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정책자문수요 파악
- ☐ 출 장 자(총 7인)

|   | 이 름   | 소속 및 직위                          | 역 할        |
|---|-------|----------------------------------|------------|
| 1 | 곽 범 국 |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br>現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 | 수석고문       |
| 2 | 이 태 희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 사업책임자      |
| 3 | 이 세 훈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사업관리자(정)   |
| 4 | 이 미 연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사업관리자(부)   |
| 5 | 손 욱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선임연구자(주제1) |
| 6 | 백 상 태 | 한국예탁결제원 RFR산출공시사무국 부장            | 과제연구자(주제2) |
| 7 | 이 진 일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 부장                 | 과제연구자(주제3) |

### III 출장 일정

☐ 전체 일정

| 일자      | 시간          | 활동내용                     | 비고             |
|---------|-------------|--------------------------|----------------|
| 8/8(월)  | 14:20-17:00 | 이동(인천 → 울란바토르)           | KE 5867        |
|         | 18:00-19:00 | 저녁식사                     |                |
| 8/9(화)  | 10:00-12:00 | 2021/22 몽골III KSP 최종보고회  | 몽골 재무부         |
|         | 12:00-14:00 | 점심식사                     |                |
|         | 14:00-15:00 | 2021/22 몽골III KSP 고위정책대화 | 몽골 재무부         |
| 8/10(수) | 10:00-12:00 | 몽골중앙은행 면담                |                |
|         | 12:00-14:00 | 점심식사                     |                |
|         | 14:00-16:00 | 금융감독위원회 면담               |                |
| 8/11(목) | 08:00-09:00 | PCR 검사                   |                |
|         | 10:00-12:00 | 몽골중앙예탁기관 면담              |                |
|         | 12:00-14:00 | 점심식사                     |                |
|         | 16:00-17:00 | 22/23 사전 협의              | 몽골 광업,<br>중공업부 |
| 8/12(금) | 12:40-16:50 | 이동(울란바토르→인천)             | KE 0868        |

□ 최종보고회 세부 일정

| 시 간                           |     | 일 정             | 발표자                                        |
|-------------------------------|-----|-----------------|--------------------------------------------|
| 개회식(10')<br>(사회: 이세훈 연구원)     |     |                 |                                            |
| 10:00-10:05                   | 5'  | 개회사             | 곽범국 수석고문                                   |
| 10:05-10:10                   | 5'  | 환영사             | SUKH-OCHIR Batsukh<br>(몽골 재무부 금융정책국장)      |
| 10:10-10:15                   | 5'  | KSP 사업 진행 경과 공유 | 이태희<br>(사업책임자)                             |
| 10:15-10:20                   | 5'  | 단체 사진 촬영        | 참석자 전원                                     |
| 발표세션(90')<br>(좌장: 이태희 /사업책임자) |     |                 |                                            |
| 세부주제Ⅰ. 국제 발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     |                 |                                            |
| 10:20-10:50                   | 15' | 최종연구결과 발표       | 손욱(선임연구자)                                  |
|                               | 15' | 토론 및 질의응답       | ODONTUYA Baigalmaa<br>(현지전문가)<br>손욱(선임연구자) |
| 세부주제Ⅱ. 국제 유통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     |                 |                                            |
| 10:50-11:20                   | 15' | 최종연구결과 발표       | 백상태(과제연구자)                                 |
|                               | 15' | 토론 및 질의응답       | BOLOORMAA Ganbold<br>(현지전문가)<br>백상태(과제연구자) |
| 세부주제Ⅲ. 국제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 마련      |     |                 |                                            |
| 11:20-11:50                   | 15' | 최종연구결과 발표       | 이진일(과제연구자)                                 |
|                               | 15' | 토론 및 질의응답       | UNDRAA Nursed<br>(현지전문가)<br>이진일(과제연구자)     |
| 폐회식(10')<br>(사회: 이세훈 연구원)     |     |                 |                                            |
| 11:50-11:55                   | 5'  | 마무리 말씀(1)       | SUKH-OCHIR Batsukh<br>(몽골 재무부 금융정책국장)      |
| 11:55-12:00                   | 5'  | 마무리 말씀(2)       | 곽범국 수석고문                                   |

**V****주요활동내용****1. 2021/22 몽골III KSP 최종보고회**

- 일시: 2022년 8월 9일(화), 10:00-12:00
- 장소: 몽골 재무부
- 참석자
  - 한국측: 광범국 수석고문, 이태희 PM, 손욱 PI, 이진일, 백상태(이상 연구진), 이미연, 이세훈(이상 사업관리자), 노기훈(예결원 관계자)
  - 몽골측: SUKH-OCHIR Batsukh 국장, ODONTUYA Baigalmaa 과장, Bolormaa Ganbold 전문가, Undraa Nursed 담당관 등

**1) 개회식****□ 개회사(SUKH-OCHIR Batsukh 몽골 재무부 금융정책국장)**

- 몽골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제는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한국은 다양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몽골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서 그 세부사항을 잘 파악하고 반영하여 몽골의 경제사회 발전에 적용하기를 희망해왔음.
- 몽골은 시장경제 전환 이후 30년이 지나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야 실질적 경험을 쌓는 사회초년생으로 볼 수 있어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
  - 특히 자본시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한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의 정책경험을 공유받아 많은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
- 한국의 전문 연구자들과 몽골의 정책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KSP 사업을 통해 관련분야의 이론과 한국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에 도입 가능한 모델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참여를 결정
  - 오늘 참석한 재무부, 금융감독위 등 몽골측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최종보고회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어가기로 권유

#### □ 답사(곽범국, 수석고문)

- 지난 중간보고회 당시 한국에서 만난 몽골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금융정책국장님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함.
- 과거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 국고국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수석고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같은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몽골의 정책관계자들에게 정책경험의 핵심을 공유드리고자 노력함.
- 이번 방문을 통해 과거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한 몽골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몽골이 한국과 같은 비약적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과정에서 올해 KSP 협력 주제인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몽골 국채시장과 자본시장이 실질적으로 개선, 발전되기를 희망
- 이번 협력의 최종정책제언은 국장님을 비롯한 몽골 정부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추진 의지에 따라 국채시장의 실질적 선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특히 고려해주시기를 기대
- 한국도 과거 미미했던 국채시장을 선진화하여 현재는 비약적인 규모로 성장한 것을 참고하시면서 몽골의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

#### □ 몽골 KSP 사업 진행 경과(이태희, 사업책임자)

- 21/22 몽골 KSP의 사업책임자로서 최종보고회에 참석해주신 몽골 재무부 금융정책국장님 이하 몽골측 관계자분들과 곽범국 수석고문님 이하 한국측 연구진께 감사를 전함.
- 몽골과의 KSP 사업은 2010년 착수 이후 현재까지 48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거시금융을 비롯하여 스마트도시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
  - 올해 사업은 과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다루었던 19/20 KSP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
- 21/22 몽골 KSP는 몽골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국채 발행시스템 선진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국채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주제로 구성하여 진행

- 오늘 참석해주신 양국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몽골 관계자분들은 오늘 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얻어가시길 기대

## 2) 연구발표

### □ (주제1) 국채 발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손 욱, 선임연구자)

- 지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당시 국채발행 선진화 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드렸으므로 오늘은 정책제언과 함께 제언의 중요성과 추진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
- 주지하듯, 국채는 세수기반의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적자재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달리보면 국가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발전,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수단
  - 개인적 견해로는 흑자재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와 적자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때 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판단
- 국채시장은 금융시장 자체의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요소
  - 몽골은 2017년 IMF 프로그램 진행을 계기로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국채발행을 중단하였고, 이후 국채발행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SP를 통한 협력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
- 몽골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몽골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 정도의 양호한 수준이나 이 중 국채의 비중은 2.4% 정도로 미미함.
  - 인상적인 점은 정부의 외채 현황으로, 몽골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외 채무를 일으켜 운영
  -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위험이 큰 방식인데, 물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조달비용의 문제가 아닌 조달 자체의 제한 가능
  - 또한 몽골의 주요자원인 구리 등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

- 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한 직후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어 국민소득은 8천불대로 급락했고 이후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추진하여 현재는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
  - 한국의 국채발행은 IMF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미미했으나,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행을 확대했고 현재는 국가채무에서 가장 중요한 조달수단으로 자리잡음.
  - 현재 한국의 국채는 3년, 5년 만기물을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50년 만기인 장기물까지 운영 중이나 주로 3년, 5년, 10년, 30년 만기 국채가 중심 역할
  - 한국 국채발행 시스템은 몽골의 구조와 유사하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거래소, 예결원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 중
- 몽골 국채시장 선진화에 있어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국채발행 선진화, 수요확대 등을 이끌어가기 바라며, 특히 발행시장은 발전방안을 긴급히 추진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유
- 끝으로 국채발행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금융기관 발전, 대외투자 확대 등과 모두 연계되며 금융시장의 근간이 됨을 감안하여 적극적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

## □ (주제2) 국채 유통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백상태, 과제연구자)

- 몽골의 국채 유통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은 발행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시스템과 국채와의 연계상품, 시장의 부재를 등 2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국채발행이 2개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스템 자체가 국채 유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
  - 대부분의 국채를 인수하는 상업은행은 이를 활용한 투자 등에 제약이 있고 국채와 연계된 리포, 선물 등 파생시장까지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

- 한국의 경우 시장이 일원화 되어 있으며,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며 전문 딜러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채 발행, 유통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한국의 유통시장은 장내,외로 구분되며 장내는 KTS, 리포시장, 선물, STRIPS 등 개설되어 있으며 장외는 GB, 3자리포 등 포함
  - 한국은 한국은행이 국채발행 사무 등을 관장하고 발행된 국채는 KTB 시스템에 등록되어 거래되고 한국예결원,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
-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정책경험과 몽골현황을 고려하여, 국채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3가지 측면의 15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 추진안을 제안
  - 1) 국채전문딜러(PD) 제도 도입
    - 한국은 발행된 국채를 PD가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국채유통시장이 크게 발전. PD를 위한 국채전문 유통시장을 구성하고 PD에 의무를 부과하여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한국은 11개 증권사, 7개 은행이 PD로 활동중이며, 몽골에서 PD를 도입하게될 경우 반드시 비금융회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권유
  - 2) 백오피스 개선
    - 몽골의 settlement cycle은 거래종류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중앙은행, 증권거래소)에 따라 t+1, t+2로 분리되어 있어 국제시스템과의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개선할 필요
    - 또한, prefunding을 위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리포거래의 경우 일방이 파산했을 때 부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거나 하는 도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3) 외국인 투자유인 확대
    -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Custody service 등 중앙은행이 국채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
    - 또한 가격변동 요인에 민감한 외국인투자자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채권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주제3) 국채 담보부거래 도입기반 마련 (이진일, 과제연구자)

- 담보제도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함께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제도로, 발행·유통 시장과 함께 꾸준히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 담보로써 국채의 수요증가는 유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발행이자율의 감소를 통한 정부재정에의 기여
- 몽골의 경우 리포매입 증권에 대해서는 담보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대차나 기타 담보활용은 아직 도입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증권은 393조 규모로 이중 국채, 통한채가 47.5%를 차지하며 다른 채권과 합하면 90% 이상이 채권을 담보로 활용
- 몽골의 국채 담보부거래 기반마련을 위해 국채 인프라 모델을 제안하며, 3년을 기준으로 단기 개선 과제와 중장기 개선과제를 구분하여 제시
  - 단기로는 금융거래, 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해외 장외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외 적격담보로의 활용도를 높여 몽골의 금융시장,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단기 개선을 위한 담보증권 재활용
  - 몽골은 리포거래로 매입한 증권에 대해 재활용도가 낮는데 외국의 경우 증권 재활용이 자연스럽고 국채 발행시장의 수요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중기 개선을 위한 증권대차시장 및 리포시장 관련 제안
  - 증권대차시장을 개설하고 리포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을 제안드림. 국고채 전문딜러 시장, PD 시장 개설을 하면 PD가 시장조사, 공매도, 공매도를 위한 증권 대여 등을 위해 대차시장 필수
  - 외국인 투자의 경우 금리변동을 헷징하기 위해 선물 시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선물/현물시장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차시장 필수
  -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국채발행을 확대하여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으며 발해물량을 유통할 수 있

- 는 유통시장을 정비하면서 PD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조성자 역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
- 몽골정부가 2017년 국채발행 중단 이후 재개할 예정이라면 대차시장을 함께 개설하여 담보재활용,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함께 꾀하는 것이 적절
  - 담보거래가 활성화 되고 제도가 안정화될 경우 국채시장에 대해 발행이자율이 낮아지므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금융시장에 있어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 □ 토론 및 질의응답

- (ODONTUYA Baigalmaa) 지금까지 몽골은 대규모의 예산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부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현재 국채발행을 재개하면서 손욱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외채조달의 위험성등을 적극 고려할 예정. PD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질적인 도입과 운영까지는 2~3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과거 PD 제도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먼 선진경제의 이야기였으나, 이번 KSP 사업을 통해 몽골에의 도입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추진의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기대. 다시 한 번 한국측 전문가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함.
- (BOLORMAA Ganbold) 현재 몽골의 국채시장은 한국의 97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예산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행. 몽골 재무부는 3년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2021년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내 국채발행의 경우 선진화를 목적으로 IT 기술 등을 도입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국채발행을 재개함에 있어 기관투자 보다는 개인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음. 이번 KSP 협력을 통해 몽골의 국채발행 재개를 준비하는 데에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PD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만기물의 운영에 대해 향후 중점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예정. 다시 한 번 한국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경험을 공유해주신 한국측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함.
- (UNDRAA Nursed) 몽골 증권시장은 이제 30년 정도가 되었으며 DBP 도입은 2년, OTC 시장 도입은 1년 정도로 초기단계. 이런 변화

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어 의미 있는 협력이었음.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재무부 뿐만 아니라 금감원, 예결원 담당자들도 참석하고 있어 몽골의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 의미가 큼.

- (재무부 재무관리과 담당자) 현재 몽골의 금융시장은 80% 정도 은행이 차지하고 있고 15~20% 정도가 비은행 기관이 차지. 선진국과 같이 비슷한 비중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며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 현재 몽골의 상업은행들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만 하는 상황과 한국과 같이 경쟁입찰 방식의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관계자들에게 질문드림

->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PD 제도인데, PD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에 응하여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PD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람.

- (괌범국 수석고문) 최종 정책제언에 대한 몽골 관계자분들의 공감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부에서 국채발행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써 시장에 순응하면서 수요에 따라가는 제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첨언드리고 싶음. 시장 발전을 위해 탈규제하고 시장과 수요에 순응할 때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 2021/22 몽골III KSP 고위정책대화

- 일시: 2022년 8월 9일(화), 15:30~16:30
- 장소: 몽골 재무부 접견실
- 참석자:
  - 한국측: 광범국 수석고문, 이태희 PM, 손욱 PI, 이진일, 백상태(이상 연구진), 이미연, 이세훈(이상 사업관리자)
  - 몽골측: MUNGUNCHIMEG Sanjaa 차관, ODONTUYA Baigalmaa 과장, UNDRAA Nursed 전문관

### □ MUNGUNCHIMEG Sanjaa 몽골 재무부 차관

- 한국과 몽골은 지금까지 KSP를 통해 다양한 협력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몽골과의 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KDI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화상회의로 진행된 착수보고회에 직접 참여한 이후 최종 정책제언에 대해 더욱 기대가 컸는데, 최종보고회를 통해 의미있는 정책제언이 공유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몽골 국채시장 선진화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제언을 제시해주심에 감사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무부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제안해주신 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 광범국 수석고문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대표단을 환영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과 몽골 양국 간 협력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KSP 사업에서 재무부 관계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
- 한국이 경험했던 외환위기 이후 국채시장 선진화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 몽골의 국채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진화하시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몽골 금융시장과 경제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시기를 기대

### □ 이태희 사업책임자

- 몽골과의 KSP 협력은 2010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48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음. 거시경제, 금융을 포함하여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2019/20 KSP 협력의 후속으로 몽골의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를 완료하였음.

#### □ 손욱 연구책임자

- 한국은 9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상회한 이후 외환위기를 통해 8천불까지 급락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금융시장 선진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음.
  - 당시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 마이너스 성장 등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국채시장의 선진화 없이는 제대로 된 금융시장 발전,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국채시장 선진화를 추진
- 몽골은 IMF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금이 금융시장 발전, 외자유치, 국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
  - 금리와 인플레이가 높아지고, 기존에 몽골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달하던 국제금융시장을 계속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발전도 지체되고 있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번 KSP 협력을 통해 국채발행 관련 발행비용 절감,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행시장 발전, 담보거래를 통한 금융시장 발전 등의 논의를 진행
  - 세부 주제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PD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도출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몽골의 상황에 비추어 도입과 반영을 결정하고 이행하시기를 기대
- 정부의 역할에 있어 안정적 흑자재정이 중요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재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여 GDP를 증가시키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국채발행, 유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첨언

#### □ MUNGUNCHIMEG Sanjaa 몽골 재무부 차관

- 의미 있는 연구와 협력을 진행해주신 한국측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담으신 내용은 재무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숙지하여 활용할 예정
- 좋은 정책 제안을 제시해주신 만큼 앞으로는 몽골 측에서 어떤 정책

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성과를 도출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므로 1~2년 후 한국 전문가분들을 다시 만나 그간의 결과를 논의하기를 희망

- KSP 협력을 진행한 이 시기는 몽골정부가 IMF 프로그램 종료 이후 경제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발돋움 하기 위한 준비 시기로 한국의 전문가들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제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 또한, 지금까지 몽골과 한국 간의 협력에 지속적으로 애써주신 이태희 사업책임자에게 재무부 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드립니다.

### 3. 몽골 중앙은행 면담

- 일시: 2022년 8월 10일(수), 11:00-13:00
- 장소: 몽골 중앙은행 대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곽범국 수석고문, 이태희 PM, 손욱 PI, 이진일, 백상태(이상 연구진), 이미연, 이세훈(이상 사업관리자), 노기훈(예결원 관계자)
  - 몽골측: ENKHTAIVAN Ganbold 부총재, ANAR Enkhbold 지급결제부 국장 외 중앙은행 관계자 00 명

#### □ 환영사 (몽골 중앙은행 ENKHTAIVAN Ganbold 부총재)

- 몽골 중앙은행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KSP를 통해 몽골 국제 시장 선진화를 위한 내용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에 큰 의미
- 몽골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함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관계와 유사. 현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제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등 국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 추진 중

#### □ 답사 (곽범국 수석고문)

- 몽골 중앙은행 초대에 감사드리며, 올해 KSP를 통해 몽골의 재정금융 정책의 입안·이행 주체와 협력을 진행한 것에 의미. 한국의 국제시장 전문가들이 몽골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최종 정책제언을 도출 하였으니 재무부와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시기를 기대

## □ 몽골 중앙은행측 발표

1. 몽골 거시경제 현황 (금융시장국 과장)
  - 몽골의 실질 GDP, 산업구조,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FDI, 외환보유액, 준비예금, 환율 추세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한 몽골의 거시경제 현황 설명
2. 몽골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지급결제부 국장)
  - 관련법·규정, 지급시스템 연혁, 몽골의 지급결제시스템 구조, 증권시장 인프라현황, ADB 협력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 현황 등 소개

## □ 질의응답

- (손욱 연구책임자) 현재 몽골 경제상황은 달러 절상으로 수입가가 오르며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이 환율 관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므로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 외환보유액의 감소추세와 더불어 국제시장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몽골 중앙은행이 환율관리에 대한 역량 제고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금리의 기간 구조가 형성되어있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질의. 국채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중앙은행 금리가 다른 관련 시장에 기준으로 활용되고 선도하는 역할에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
  - (금융시장국 과장) 기준금리 형성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 인지. 몽골은 2017년까지 국내에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에 기반한 국가채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 2022년 이후 발행 재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와 규모를 논의 중이며,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통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
- (손욱 연구책임자) 중단된 국채발행을 재개할 경우 여전히 은행을 대상으로만 추진할 계획인지, 혹은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 소수의 대형은행이 가격 형성을 주도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질의
  - (금융시장국 과장) 선진국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많은 영향을 미치나 몽골은 금융시장의 80% 이상을 상업은행이 차지하며 국채발행 관련 가장 중요한 역할. 입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등 다양한 청약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채발행이 재개될 경우에도 현재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상업은행이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

- (금융시장국 과장) 몽골에서도 과거 상업은행이 한국의 PD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음. 일반 투자자들도 상업은행을 통해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후 규정을 변경하여 상업은행만 참여 허가. 기존에 상업은행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추세였던 이유는 2016년~2017년 환율 약세, 금리상승 등으로 만기 보유가 선호되었음.

→ (손욱 연구책임자) 이번 KPS 보고서에 한국의 PD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몽골 도입에 대한 제언내용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만기보유 이슈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으나, 국채가 다양한 만기물로 발행된다면 상업은행 또는 PD가 만기 이전에도 거래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 마무리

- (곽범국 수석고문) 한국과 몽골의 상황이 다르지만, 재정당국과 중앙은행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채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등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은행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반을 사전에 고려하고 준비해야함을 강조
- (이태희 사업책임자) 중앙은행 관계자분들의 환영과 발표에 감사드리며, 향후 KSP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제안을 해주시기를 기대

#### 4.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면담

- 일시: 2022년 8월 10일(수), 14:00~15:30
- 장소: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광범국 수석고문, 이태희 PM, 손욱 PI, 이진일, 백상태(이상 연구진), 이미연, 이세훈(이상 사업관리자)
  - 몽골측: BAYARSAIKHAN Dembereldash 금감위원장, DULGUUN Battulga 증권국장 등 4명

##### □ 환영사 (BAYARSAIKHAN Dembereldash 위원장)

- 몽골에 방문하신 KSP 팀을 환영하며, 이번 KSP를 통해 제시한 몽골의 국채시장 관련 제언은 우리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재무부,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 앞으로도 몽골과 다양한 주제를 통해 KSP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
- 몽골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후 31년간 운영되어 오며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옴. 지금까지는 비은행 기관에 대한 관리를 주 업무였으나 향후 은행을 포함한 관리감독업무를 진행할 예정
- 그동안 KSP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과의 협력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추후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

##### □ 답사 (광범국 수석고문/이태희 사업책임자)

- KSP는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2004년부터 시작한 정부간 정책협력사업으로, 몽골을 포함한 협력국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몽골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협력사업
  - 협력주제는 금융주제를 비롯하여 녹색, 디지털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몽골과는 PPP,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KSP 협력을 진행
- 오늘 면담을 계기로 연구의 최종결과를 전달드리고자 하며, 이후 후속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를 희망

## □ 최종 정책제언 (손욱 연구책임자)

- 이번 KSP 사업에서 도출된 정책제언 중 금융감독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함.
- 재무부 측에 국채발행 시장과 관련하여 국채전문딜러(PD) 제도의 도입을 제안
  - 몽골 금융기관과 시장에서 은행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PD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지표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
  - 금감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표를 PD 자격요건과 일치하여 운영할 경우 제도의 개선을 비롯 PD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
- 또한 과도하게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몽골의 국채,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제안
  -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국채시장에 참여하고 국채발행과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

## □ 토론 및 질의응답

- (Dulguun Battulga 증권국장) 1. 재무부를 통해 현재 버전의 KSP 최종보고서를 확인해보았으며, 한국 연구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의 후속 협력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국채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마련에 대한 내용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를 희망. 또한 금융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더욱 다양하고 비중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희망. 특히 PD 제도와 관련하여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 등 기관들도 포함하는 것을 권유하셨는데 이를 위한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희망. 2. 최종보고서 상 몽골의 국채유통시장이 2개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작년부터 금감원이 OCT를 공식화하여 운영 중임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interbank OCT 제도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측에서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 비은행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어 이점을 참고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재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손욱 연구책임자) 기관투자자가 OCT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PD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PD제도에서 우선 결정할 것은 은행만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범위를 넓힐 것인지로, 몽골의 현 상황을 보았을 때 과도하게 은행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PD 제도에 대한 내용은 한국 제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재무부 측에 공유했으니 함께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기를 기대

→ (백상태 연구자) 몽골에서 시행 중인 OCT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국채가 전문적으로 유통되는 KTX 시장을 형성하여 의무거래제도를 도입. 시장이 고도화되고 PD들의 역량이 제고된 이후 PD 측에서 자율성을 요구하여 KTX에서 지표물 국채를 의무거래 하는 것은 종료시킴. 이와 같이 한국은 시장의 성숙도와 PD의 역량에 따라 제도와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옴. interbank OCT 마켓과 국채 관련 사항은 금감원측 의견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소개 정도로 조정하여 담는 것을 고려하겠음.

#### □ 몽골 OCT 시장 (몽골 증권협회 관계자)

- 협회소개, 회원사, 시장현황, M-OCT 시장 디지털 시스템 소개, 근거 법령, M-OCT 시장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선점 등 소개

#### □ 토론 및 질의응답

- (백상태) 설명하신 M-OCT 마켓에는 은행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 반쪽 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 (증권협회 관계자) 지금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interbank간 거래 시스템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은행도 직접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중인데 현행 은행법 상으로는 은행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증권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행제도에서도 은행이 증권사를 통해 참여가 가능

→ (증권국장) M-OCT의 경우 고소득 개인이나 해외투자자, 중앙은행도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사와 보험사도 가능함. 유일하게 시중은행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걸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은행법상 규정

되어 있어 증권사/보험사를 통한 간접참여만 가능한 것

#### □ 후속협력 논의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장) 이번 사업은 재무부를 대표기관으로 하여 몽골 금융감독원이 참여하였으나, 향후 우리 기관 자체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KSP 차원의 협력이나 KDI와의 직접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희망
  - 국제시장에 대한 협력은 재정당국과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의미있었으나, 금융감독원 차원의 단독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
- (이태희 사업책임자) KSP는 정부간 사업으로 부처를 통한 사업의 제안과 선정 절차가 필수. 금융감독원측의 협력제안서를 외교채널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제안에 있어 기존 협력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언의 이행과 후속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성실히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5. 몽골중앙예탁기관 면담

- 일시: 2022년 8월 11일(목), 10:00-12:00
- 장소: 몽골중앙예탁기관 대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광범국 수석고문, 이태희 PM, 손욱 PI, 이진일, 백상태(이상 연구진), 이미연, 이세훈(이상 사업관리자)
  - 몽골측: LKHAGVA Shagdar 사장, KH Battulga 선임전문가 등

#### □ 환영사 (LKHAGVA Shagdar 사장)

- 몽골에 방문하신 KSP 팀을 환영하며, 바쁜 일정에도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 업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KSP 정책자문결과의 적용에 대해 논의 드리고자 함

#### □ 답사 (광범국 수석고문/이태희 사업책임자)

- KSP 팀을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몽골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예탁결제원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므로 KSP 자문결과를 통한 정책제언을 좀 더 수월히 반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몽골 예탁결제원 업무소개 (KH Battulga 선임전문가)

- 몽골 예탁결제원은 2003년 몽골 거래소에서 분리되어 100% 국영기업으로 운영 중으로 2021년 기준 334개 발행사가 등록되어 있고 887억 주가 예결원에 예탁되어 있음.
- 2022년 1분기 기준 민간 상장사가 85.6%를 차지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채권거래량도 증가하여 약 180억 투그릭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짐.
- OCT 시장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25건이 등록되어 운영중임.
- 2022년에는 비상장사의 증권 예탁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여 예탁과 결제 업무를 모두 수행중이며 OCT 시장 개장을 계기로 거래소 이외의 시장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 2023년에는 SWIFT 결제망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에 대한 규정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 □ 토론

- (LKHAGVA Shagdar 사장) 몽골은 지난 몇 년 간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채발행 중단, 결제주기 변경 등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금융위기를 대응하고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KSP와 같은 협력사업이나 한국의 예탁결제원과의 지속적 협력이 매우 중요
- (이진일 과제연구자) 설명해주신 2023년 MCSD 추진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를 희망하며 몇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 대차시장을 도입할 경우 실제 수요 규모, 시장조성자 역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무부와 논의하고 정책 수립/이행의 보조를 맞추는 필요
  - 대차시장 도입을 통해 담보거래 등이 가능한 경우 일련의 업무는 통상 IB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몽골의 시중은행이 이러한 기능을 선점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하여 실제 추진에 반영할 필요

(이태희 사업책임자) 21/22 몽골 KSP는 국채관련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루면서 재무부 뿐만 아니라 MCSD, 중앙은행 등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향후에도 몽골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신 경우 적극 공유해주시기를 기대

## VI 사진 자료

<사진 1> 몽골III KSP 최종보고회(1)



<사진 2> 몽골III KSP 최종보고회(2)



<사진 3> 몽골III KSP 고위정책대화(1)



<사진 4> 몽골III KSP 고위정책대화(2)



<사진 5> 몽골중앙은행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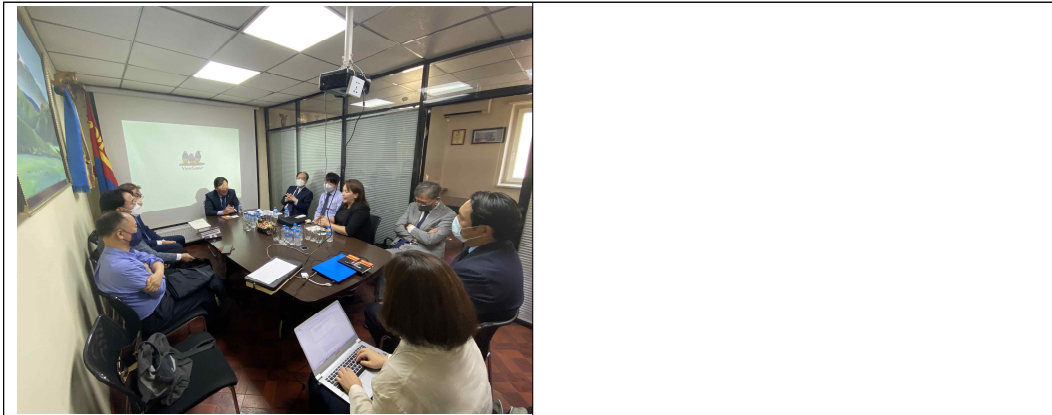


<사진 6>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면담



<사진 7> 몽골중앙예탁기관 면담

<사진 8> 22/23 몽골 KSP 사전협의



## **VII** 향후 추진계획(잠정)

---

- '22년 9월 23, 26일: 최종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국문)\*\* 제출
  - \*각 세부주제별 영문 요약 2페이지, 영문 40페이지, 국문요약 10페이지 내외 / 선임 연구자의 경우 영문 총론(3페이지 내외) 포함
  - \*\*선임연구자에 한함(주요 연구내용, 시사점 및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서술)
- '22년 10월: 사업종료평가회의